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 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_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오라 우리가 고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_ 시편 95:6-7



02 | 고등부 겨울수련회

‘A Love Letter From God’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6 고등부 겨울수련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살아 있는 러브레터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와 프로그램, 교제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도록 파송된 고등부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03 | 중등부 겨울캠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년부 중등부 겨울 캠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된 사랑의 편지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 보내진 러브레터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04 | 양육클래스

05

신앙은 함께 배우고 나눌 때 더욱 깊어지며, 양육은 그 여정을 동행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주님의교회가 준비한 양육클래스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도록 초대합니다.

06 | 학원선교부

학원선교부의 사랑어머니와 기도어머니들은 학교 안에서 다음세대를 향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청소년 곁을 지키는 ‘안전한 어른’으로 서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가 복음을 삶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지는 귀한 여정을 소개합니다.

07 | 십자말풀이

이번 호의 성경 십자말풀이는 신약의 열세 번째 책,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따라 말씀을 찾아가며 성경을 더욱 깊이 읽어 보도록 초대합니다.

고등부
겨울수련회

하나님의 러브레터, 고등부

지난 2월 7일(토)~8일(주일)까지 <2026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A Love Letter From God”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무엇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열정적이었던 그 은혜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예배

“A Love Letter From God”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3번의 예배를 통해 1)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쓰인 존재이며 2)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했고 3) 우리가 이제 편지를 받은 자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 있는 러브레터”로 파송되는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지서관학교 99기(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편지서관학교 99기’라는 이름 아래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희망을 물어온 비둘기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유쾌한 훈련들이 이어졌습니다. 조별로서로 응원하고 격려를 나누고 미션을 수행하며 서먹했던 관계는 사라지고, 고등부 공동체라는 이름의 끈끈한 유대감이 싹트는 소중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A Love Letter From God: 바울의 시그널(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은 펍박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붓을 들고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심장을 이어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전달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세상을 향한 편지를 써 보고, 직접 편지를 전달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수련회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

수련회는 끝이 났지만, 우리 아이들의 ‘편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 동안 가슴에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봉투 속에 담겨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멋진 러브레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길 전도사 / 고등부

고등부
겨울수련회

러브레터를 받은 우리의 고백

사실 수련회에 가기 전에는 이번 수련회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 이 주제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전,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회 시간에 모두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놀랐던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생들, 친구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자의 이야기, 아픔, 신앙 등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며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러브레터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받은 이 러브레터를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선생님들, 교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ㅎㅎ 최승리 / 고등부 2학년

고등학생으로 올라오면서 요즘 참 많이 방황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사실 우리 각자 개인 개인

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두려운 미래가 와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 첫 고등부 수련회였는데 너무 즐거웠고 여름 수련회도 너무 기대가 된다 :) 손시현 / 고등부 1학년

이번 수련회는 너무 많이 웃어서 수련회 동안 너무나 행복했고 뭔가 더 자신감도 생겨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편지를 비유해서 한 것은 너무나 흥미로웠고, 더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 수련회도 너무 기대됩니다. 수련회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하 / 고등부 2학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어서 정말 인상 깊었고, 하나님께 내 진심이 닿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선생님들을 따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이번 수련회는 정말 만족스럽고 고등부 첫 수련회 이상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정세은 / 고등부 1학년

중등부
겨울캠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러브레터”

청소년숲 중등부 겨울 캠프가 2026년 1월 31일~2월 1일(토·주일)까지 1박 2일간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된 존재이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 쓰신 “러브레터 자체”임을 배우게 되었으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어질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짜 위로는 상황이 바뀔 때가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번 겨울 캠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팝콘트리 중등부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찬양 목사 / 중등부



중등부
겨울캠프

설렘 속에서 배운 섬김

이번 수련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참으로 값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교사의 자리에서 중등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수련회는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과 더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함께 울고 웃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민과 순수한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교사의 역할이 서툴고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을 통해 아이들이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건혁 청년교사 / 중등부

중등부
겨울캠프

익명 후기

“여는 예배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팝콘 플렉스’로 흥미롭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아이들이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앨범 제작 과정은 조금 번거로웠지만, 수련회의 내용이 오래 남을 것 같아 의미 있었습니다.”

중등부 교사

“간식이 맛있었고 찬양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중1

“프로그램도 재미있었지만 집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

중3

양육클래스

배움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

신앙은 혼자 자라가기보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더욱 깊어집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도록 돕는 공동체이며, 양육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머무르지 않고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다양한 양육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배우는 시간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각 클래스를 통해 자신의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배움의 자리를 발견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글함글

• 성지순례 (박민규 목사, 이상훈 목사)

성지순례를 기도로 준비하며, 성지의 배경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 배웁니다.

제1강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

제2강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2

제3강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3 (여행사 교육)



•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조연상 목사)

그동안 로마서는 전통적인 십자가 구속의 관점에서 읽혀 왔다. 이번 강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고, 바울 신학과 복음서의 간극을 좁히는 데 있다. 안용성 목사의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책을 골자로 하여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사회와 피조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적용하고자 한다.



제1강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2강 로마서의 복음 1

제3강 로마서의 복음 2

제4강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 1

제5강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 2

제6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1

제7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2

제8강 이신칭의 1

제9강 이신칭의 2

제10강 영광의 소망

• 에스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김주환 목사)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8주간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감춰진 섭리를 발견하고, 에스더서에 대한 통찰과 삶의 적용을 안내한다.



제1강 에스더 개관, 1장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부재"

제2강 2장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연을 가장한 섭리"

제3강 3장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위기"

제4강 4장 "모르드개의 도전과 에스더의 결단"

제5강 5-6장 에스더의 지혜와 왕의 불면증-하만의 몰락이 시작되는 지점

제6강 7-8장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의 최후-반전된 조서와 구원의 선포

제7강 9장 대적들을 이긴 유대인-부림절의 의미

제8강 10장 모르드개의 승귀와 에스더서의 결론

• 영성훈련: 영성생활의 기초 탐구 (최대형 장로)

기독교 영성사의 전환점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탐구. 역사의 소용돌이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다.



제1강 세상에서 수도사로 살기 (신앙생활의 근본 태도)

제2강 초대 사막 수도사들, 그들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4세기 사막의 영성)

제3강 "일하고 기도하라!" (5세기 베네딕도 수도규칙)

제4강 "하나님이 원하신다!" (11-15세기 십자군 전쟁과 중세의 암흑기)

제5강 가난이 부요를 이긴다 (13세기 아씨시의 프란시스의 영성)

제6강 "관상한 것을 세상에 나가 외쳐라!" (13세기 도미니크의 영성)

제7강 전쟁의 폐허 위에 피어난 영성 (13세기 베긴회의 영성)

제8강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15세기 인본주의의 탄생)

제9강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제10강 "아름다움을 사랑함" (20세기 말, 한때 잊었던 형제와의 재회)

제11강 교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사는 자매의 집 (20세기 가톨릭의 개혁)

제12강 어린왕자 (영성학 총론)

• 금요일에 시간 어떠세요? (배윤환 목사)

찬양, 말씀, 기도의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절대 쉬운 시간, 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각오가 되신 분만 오세요! 그렇다고 힘들기만 한 시간은 아닙니다. 찬양이 주는 기쁨, 말씀을 통해 느끼는 절망, 기도로 경험하는 깊은 영성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 해본 사람, 맛본 사람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오셔서 경험해 보세요! 금요일에 시간 어떠세요?



제1강 3/13(금) "아는 맛이 무섭다"

제2강 3/20(금) "예수님과 교회-1"

제3강 3/27(금) "예수님과 교회-2"

제4강 4/10(금) "달인"

제5강 4/17(금) "50 vs 50"

제6강 4/24(금) "무기명? 무명의 그리스도인"

제7강 5/1(금)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제8강 5/8(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9강 5/15(금) "하나님 나라의 비효율성"

제10강 5/29(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 요한복음에서 길을 찾다 (차승천 목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삶의 여러 문제들, 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본 강의는 캠브리지대학교 석학 데이비드 포드(David F. Ford) 교수가 20년동안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을 담은 '요한복음 주석'을 강의합니다. 생명의 책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속 생생한 사건들 안에서 텍스트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제1강 비길 데 없는 지평
- 제2강 배우는 공동체의 형성
- 제3강 영광과 새 생명의 표적들
- 제4강 깜짝 놀랄 가르침
- 제5강 놀라운, 생명을 주는 두 번의 만남
- 제6강 위험과 분열, 정체성과 욕망
- 제7강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 제8강 위로 그 이상

• Road to Lord (배윤환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실 2026년의 봄날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요? 봄날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걷게 될 길 위에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제1강 3/28(토) 대모산 자락길
- 제2강 4/25(토) 아차산
- 제3강 5/2(토) 청계산
- 제4강 5/23(토) 양재천
- 제5강 6/20(토) 탄천길

• 다윗의 삶 새롭게 읽기 (이태욱 목사)

본 강의는 우리가 영웅으로 칭송해 온 인간 다윗의 화려한 성취와 성공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추적합니다. 광야의 도망자 시절부터 밋세바 사건, 인구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다양한 실수와 잘못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끝내 무너지지 않고 왕으로서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선택이나 굳건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본 여정은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제1강 선택의 파격: 외모가 아닌 중심
- 제2강 전쟁의 주권: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
- 제3강 광야의 섭리: 도망자들 사이의 하나님
- 제4강 예배의 중심: 춤과 언약

- 제5강 언약의 주도권: 집을 짓는 자는 누구인가
- 제6강 헤세드의 실현: 르비보셋을 향한 은총
- 제7강 죄와 심판: 감찰하시는 하나님
- 제8강 징계와 수용: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도피
- 제9강 진노와 자비: 인구조사와 타작 마당
- 제10강 역사의 계승: 인간은 가고 약속은 남는다

• 성경 개관: 신구약의 큰 흐름을 읽다 (박준범 목사)

본 강의는 성경의 형성 과정부터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장절을 읽는 수준을 넘어, 성경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성경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암흑기로 불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어 신약의 배경을 명쾌하게 이해합니다. 특히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을 연대기별로 학습하며 파편화된 지식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더불어 성경의 기초과정으로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본기를 점검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신앙생활의 초심자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교육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 제1강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제2강 시간순으로 성경 다시 배열하기(구약)
- 제3강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 제4강 구약성경 개관(1) - 창세기~열왕기상·하
- 제5강 구약성경 개관(2) - 대·라·느
- 제6강 신구약 중간시대
- 제7강 신약성경 개관
- 제8강 사복음서 시간 순서대로 읽기
- 제9강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 제10강 나가면서: 성경의 큰 흐름 정리하기

• 신학의 맛 살짝 보기 S.1 (김요한 목사)

흔히 신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성도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이미 자기 나름의 신학적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성찰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되새겨 보는 시간입니다. 본래 기독교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이해하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잘 믿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1강 목사가 아닌 나에게도 신학이 필요할까?
- 제2강 이성과 신앙은 충돌할까?
- 제3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 제4강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까?
- 제5강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 제6강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 제7강 우리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할까?
- 제8강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학원선교부
사랑어머니·기도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에서, 함께 걷는 어른으로

주님의교회는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하여 다음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학원선교부의 ‘사랑어머니’와 ‘기도어머니’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랑어머니’는 정신여중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인성 훈련과 복음 제시 수업을 진행하며, 어머니 한 분이 4~5명의 학생을 만납니다. ‘기도어머니’는 정신여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총 8회 성경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4~5명의 학생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며 ‘멘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2026 기도어머니 수업 연중 계획표(1. 2학년)

주차	월 / 일
1주차	3월 9~13일
2주차	4월 13~17일
3주차	5월 11~15일
4주차	6월 8~12일
5주차	8월 24~28일
6주차	9월 14~18일
7주차	10월 26~30일
8주차	11월 30~12월 4일

고1 밀알수련회 : 3/19-20(1-3반), 3/26-27(4-6반), 4/2-3(7-10반)

고1 예랑캠프 : 5/20-22

2학년 학급별 일정표

학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정	3/24		3/31		5/12		5/19		5/26		6/2	

이 사역에는 주님의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동역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신여고 동문회를 비롯해 소망교회, 기쁜소식교회, 새문안교회 소속 어머니들도 학원 복음화 사역에 동참하여 연합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학원선교부
교육세미나

기도하는 어머니에서 함께 걷는 어른으로

일시 | 2026. 02. 24(화) 10:20 - 12:00
장소 | 김마리아회관 1층 소예배실 (애니엘러스홀)
*세미나 후 식사가 제공됩니다.

강사 현영광 목사
백석대학교학원 졸업(M.Div)
현) 서울십대선교회 서울YFC 대표
현) 청소년월동공간 TeenWork 대표
현) 다중지능 연구소 연구장사
광명대학교 중·고등부 담임 교육총괄목사
청소년사역자협의회 총무

주님의교회 학원선교부

학원선교부에서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를 초청해 다음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기 위해 연 3회의 세미나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연초와 연말에는 개강 및 종강 세미나를, 8월에는 당일 수련회를 갖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2026년도를 맞아 70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인 가운데 개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십대지기선교회(YFC) 대표 현영광 목사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에서, 함께 걷는 어른으로’라는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강사 목사님의 첫 질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다음세대에 대한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믿음이 약해’라고 규정하는 시선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대답은 흔히 ‘요요’로 요약됩니다. 어른들의 질문에 “그냥 요요”, “몰라요”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예의가 없다’거나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어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곧바로 어른의 조언과 평가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대답인 침묵이나 회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비교의 늪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안전한 어른’은 말을 끊지 않고 우선 공감해주며,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교육은 해야지”, “옳은 것을 가르쳐줘야지”, “내가 먼저 경험해봤으니 알려주는 거야”라는 태도로는 더 이상 다음세대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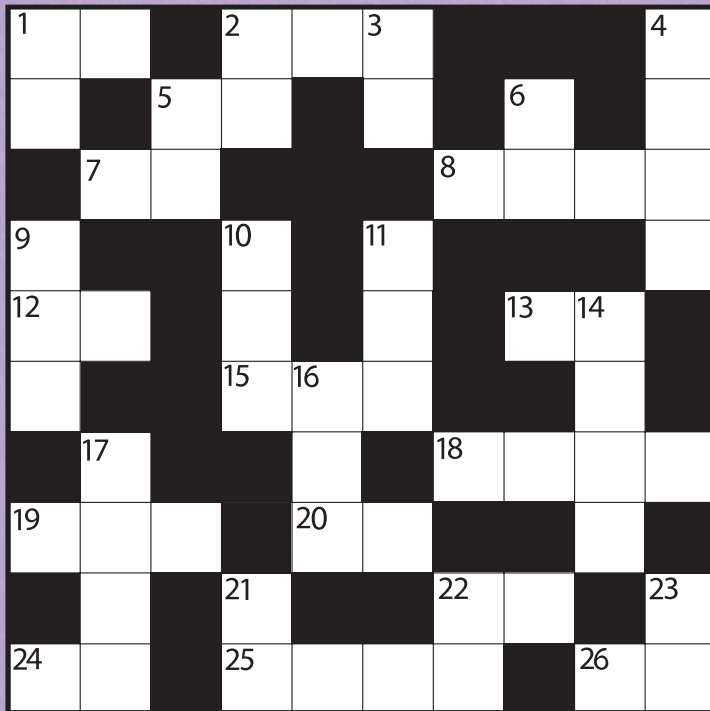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떠올려 봅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대신 그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예수님처럼 그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로 가르치고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툴고 예의 없어 보이는 청소년을 평가하지 않고, 그들 곁을 끝까지 지키며 ‘안전한 어른’이 되어주는 것은 좁은 문을 지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세대를 만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랑어머니와 기도어머니들에게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학교 안에 세우신 이유를 되새기며, 학원 복음화에 마음을 쏟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계원 목사 / 청소년숲 총괄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데살로니가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세 번째 권인 <데살로니가 후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시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른 연대인 서기 50년 전후에 쓰인 문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성서 비평학자들은 바울의 저작이 아니며 서기 80년 이후에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 어떤 대상을 꼭 집어 가리킴. (살후 3:14)
-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살후 1:10)
-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알려 주신 인간 구원의 소식을 말한다. (살후 2:14)
- 어떤 권유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따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살후 3:14)
-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원인이 되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붙여 말할 때 쓴다. (살후 1:4)
- 둘 이상의 사람이 한데 모이는 것. 또는 그것 자체를 부르는 말이다. 어떤 은행 앱에서는 이것을 위한 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 (살후 2:1)
- 평화롭고 강령함. 걱정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살후 1:2)
- 아무리 해도. 의심할 바 없이. (살후 3:11)
-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격려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실천하도록 하라는 의미로 쓰인다. (살후 3:15)
- 하지만. 앞에 온 말과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 말을 쓸 때 붙이는 접속 부사. (살후 3:15)
- 어떤 둘 이상의 존재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닌 상대를 대상으로. (살후 1:3)
- 어떤 것을 드러내 보임. 또는 그렇게 드러내 보인 것. (살후 3:17)
-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것을 말한다. (살후 2:16)
- 가짜로 기적처럼 보이게 만든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적과 비슷한 것을 뜻한다. (살후 2:9)
- 재난과 근심을 두루 이르는 말. 대체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 자체를 말한다. (살후 1:4)

세로 힌트

- 바로 이 때. 시방. (살후 2:6)
-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 또는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 (살후 1:3)
-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 때로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살후 3:12)
-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 (살후 1:1)
- 다른 존재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름. 군대에서 흔히 강요되는 것이기도 하다. (살후 1:8)
- 벌써. 어떤 상황 자체가 시간적으로 지나간 상태를 말한다. (살후 2:7)
- 루스드라 출신의 전도자. 바울이 신뢰했던 동역자였다. (살후 1:1)
- 나를 비롯한 여러 역시. 겸양법에 따르면 '저희도'가 된다. (살후 1:11)
- 어머니의 남편. (살후 2:16)
- 신적인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높이는 말. (살후 2:1)
- 질서가 없음. 함께 지키기로 한 규칙이나 제도를 무시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살후 3:7)
- '그러하므로'의 준말. 앞의 말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되었을 때 쓴다. (살후 1:47)
-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대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살후 1:10)
- 겉으로 나타난 흔적.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했다. (살후 2:9)
- 괴롭고 어려움. 또는 괴롭고 어려움을 자아내는 상황이나 사건을 말한다. (살후 1:5)

2026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6. 3. 8 (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6. 4. 12 (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 1차 선거 2026. 5. 10 (주일), 2차 선거 2026. 5. 17 (주일)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고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 기준)	자격 및 성품	세례학당 이수여부 (선거년도말 기준)
장로	7년	10년	만40세~65세 미만 1962.1.1~1966.12.31 출생자	성실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57.1.1~1996.12.31 출생자	행위거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57.1.1~1996.12.31 출생자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항존직(은퇴장로, 사임장로, 시무, 은퇴 안수집사, 시무, 은퇴권사, 협동장로)

- 거자씨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규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지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규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고 교인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6년 1월 11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7기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마침내! 열매 맺을 아람에 거룩한 기쁨으로 그대들 놀이도 그대들 하나님 아버지의, 2026년 2월 28일

기간

봄학기(6주) 3/14 ~ 4/18

가을학기(7주) 9/19 ~ 11/14

시간

매주 토요일 5시 ~ 6시 30분 pm

장소

김마리아관 1층 소예배실

문의

조연상 목사 (010-5465-3497) / 회비 3만원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정	교육내용	강사	비고
3/14	'기독교교육' 바로알기	장승현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3/21	신앙교사의 예배	이태훈 목사	주님의교회
3/28	신앙교사의 지도력	차승천 목사	
4/4	상당가로서의 신앙교사	이상억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4/11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이현식 장로	주님의교회
4/18	자기를 찾아 떠나는 영성여행	조연상 목사	
9/19	사명과 섬김의 사람	박상진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10/10	비전을 찾아 떠나는 영성여행	배운환 목사	
10/17	다음세대를 세우는 영성여행	박준범 목사	
10/24	'교육과정' 바로 알기	박성철 목사	주님의교회
10/31	부서방문	실습	
11/7	N.T. 와 C.T.	박민규 목사	
11/14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수료)	김화수 목사	

11기 자유편

마더와이즈

MOTHERWISE

성경적 여성성이라는 교구한 사명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모임

3.17(화) ~ 5.19(화) 오전 10시 (9주) 3층 초등부실

모집기간 12/1~2/22 (신청순 35명)

마더와이즈신청하기

자유편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1주 입학식	3.17	입학식, 환영, 65기도, 조별모임
2주	3.24	포도나무의 원라: 생명
3주	3.31	가지의 원라: 문제의 뿌리
4주	4.7	가지의 원리
5주	4.14	가자차기의 원라: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6주	4.21	가자차기의 원라: 갈라나기
7주	4.28	새벽의 원라: 포도나무에 접붙이기
8주	5.12	새벽의 원라: 새로운 성장
9주 수료식	5.19	열매의 원라: 성숙을 향해 막아갈 / 수료식

문의 | 이윤경 목사 010-9267-3582

2026년 봄학기

양육클래스

신학의 맛 살짝 보기1

성경개관 : 신구약의 큰 흐름을 읽다

김요한 목사 010-5187-0127

박준범 목사 010-7164-5324

주말 오후 2:30

성지순례 :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사전교육입니다.

성지순례 : 4/19(주일), 4/26(주일), 5/3(주일)

박민규 목사 010-8790-9690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금요일 오전 10:30

다윗의 삶 새롭게 읽기

이태훈 목사 010-7233-6796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

조연상 목사 010-5465-3497

요한복음에서 길을 찾다

차승천 목사 010-7544-3945

금요일 오후 2:00

에스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김주환 목사 010-6233-3124

금요일 저녁 8:00

금요일에 시간 아껴요?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토요일 오전 10:00

영성훈련: 영성생활의 기초 탐구(1)

최대형 장로 010-3138-3262

토요일 오전 (교회밖)

함께 걸으며 길 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회비 10,000원

Road to Lord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3/29, 4/25, 5/2, 5/30, 6/20

신청

신학기 2/15 (주일) ~ 3/8 (주일)

신청방법

A. 각 강좌 담당 강사에게 문자로 신청

B. 교회 홈페이지 - 양육과 훈련 - 양육 - '양육클래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문의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2026년 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

3.6 (수) 19:00 ~ 3.7 (토) 13:00

소망수양관

이창교 목사
광원성남교회

김태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회비 1만원 / SC세일은행 주님의교회 : 204-20-190253 / 입금자명: 수련회-000

4기

꿈꾸는 3막

'꿈꾸는 3막'은 진리의 말씀이 제시하는 노년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는 신앙교육과정입니다.

2026년 4기는 '영성'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3막을 함께 열어갑시다!

주제

영성

기간

3.12 (목) - 4.30 (목)

시간

오전 10:00-12:00 / 초등부실(3층)

모집인원

40명 (신청순)

문의

김은선 목사 010.4773.8186

김보람 목사 010.9303.0072

십자말씀이 512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씀이와 함줄함울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줄함울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줄함울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3/1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성찬주일

3/4 (수)

2교구 연합 수요기도회

3/6-7 (금-토)

상반기 거자씨 인도자 수련회

3/7 (토)

어와나 1학기 오프닝

3/8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정기당회, 양육클래스 개강

3/11 (수)

거자씨 인도자 교육 1학기 개강

3/14 (토)

온세대 새벽기도회, 세움학당 개강

3/15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3/18 (수)

남녀선교회 헌신예배

3/22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알립니다

1. (사)섬김과 나눔 교육 및 진로지원비 신청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원)생

신청: 3/3(화) ~ 3/8(주일)

접수: 교회 사무실(1층)

문의: 이정은 집사(010.2882.5113)

※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 및 (사)섬김과 나눔 홈페이지 참조

2. 상반기 유소년축구 모집(5~13세)

기간: 3/15~5/31(매 주일)

시간: 오후 1시

장소: 학교 운동장

접수: 2/22(주일)~3/15(주일)까지(1층 로비 및 QR코드)

3. 2026-1 예배다 수어교실 모집(초급, 중급반)

기간: 3/8 ~ 4/26(매주일, 8주)

시간: 오후 1시

장소: 다목적실(지하)

신청: 김보람 목사(010.9303.0072)

모집합니다

1. 전문선교위원회 의료선교부 봉사자

분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문의: 홍승호 안수집사(010.5411.1048)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